



[산업]  
삼성 QLED TV  
높은 판매량 이어가  
라이프스타일 전략 통하나  
08

[바이오]  
삼성바이오로직스  
스위스 론자 상대  
특허무효 심판 '승소'  
L2



## 눈덩이처럼 커진 빚 채무조정으로 회생을... 새출발 '조력자'

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상담 원스톱 해결  
채무자에 돈 갚을 수 있는 환경 만들어줘야  
채무조정 시 빚독촉 멈추고 경제활동 가능해  
젊었을 때부터 기본적인 신용등급 관리해야



### 새벽을 여는 사람들 //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이 선 인 센터장

병이 생기면 의사가 치료를 도와주듯  
이 빚이 생기면 채무상환을 도와주는 곳  
이 있다. 바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 
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다.

신용회복위원회는 전국 47개의 서민  
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. 센터는  
위원회(채무·파산상담) 뿐만 아니라 미  
소금융(자영업자·사업자 대출업무), 서  
민금융진흥원(햇살론·복지와연계된 업  
무 상담), 한국자산관리공사(바꿔드림  
론·국민행복기금 관련 업무) 등의 기관  
과도 연계돼 있다. 즉, 여러 기관의 채무  
관련 상담을 한 곳에서 '원스톱(One-S  
top)'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 
곳이다.

서울 광화문에  
위치한 프레스센  
터 6층. 이곳에 중  
앙 서민금융통합  
지원센터가 있  
다. 빚 독촉에 시  
달리다가 채무  
조정 제도를 신

청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이곳을 찾는다.  
채무자들의 방패역할을 맡아주고 있는  
이 곳의 수장, 이선인 서민금융통합지원  
센터장을 만나봤다.

"빚 상담 들어주는 친구 있어요? 만약  
있다면 진짜 좋은 친구예요. 일반적으로  
사람이 빚이 생기면 그 누구에게도 말을  
못하고 끙끙 앓아요. 채무 때문에 고통스  
러워하는 사람들이 대책을 마련해야 하  
는데 혼자서는 절대 쉽지가 않죠. 우리 센  
터에서는 고객들의 상황에 따라 최선의  
방법을 고민하고 상담해 주는 일을 하고  
있습니다."

센터에서는 빚이 많아 정상적으로 상  
환이 힘든 채무자들에게 상환기간 연장,  
분할상환, 이자율 조정 등을 통해 경제적  
인 재기를 지원하는 '채무조정제도'를 지  
원하고 있다. 연체채무를 보유한 기간과  
총 채무액에 따라 개인워크아웃 또는 프  
리워크아웃을 통해 이자를 감면받고 상

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 
있다.

이 센터장은 최근 채무조정제도의 혜  
택을 받기 위한 방문한 한 60세 이상의 여  
성을 예시로 보여줬다.

사회취약계층인 A씨. 처음에 대출을  
받은 곳은 시중은행이 운영하는 카드사  
였다. 오랜기간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  
하자 채권자는 다른업체로 여러번 넘어  
갔다. 약 7000만원을 빌렸지만 이후에 2  
억원이 넘는 이자가 붙었다. 결국 채무  
조정을 거쳤고 약 2300만원까지 감면 혜  
택을 받았다. 이 또한 월 24만원씩 납부  
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매달 갚아가고 있  
었다.

채무자들에게 이같은 혜택이 돌아가다  
보니 사회적으로 모럴헤저드(도덕적 해  
이) 확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것이  
사실이다. 이에 대해 이 센터장은 채무자  
들에게 돈을 갚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 
줘야 채권자도 돈을 받을 수 있다는데에  
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.

"예전에는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 
의식이 강했던 것 같아요. 채권자들이 채  
무자들을 너무 괴롭혔죠 사실. 하지만 그



이선인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 센터장이 인터뷰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. /신용회복위원회

런 방식은 사회적비용이 더 많이 듦다고  
여기는 것이 현실입니다. 통장으로 월급  
들어와봤자 다 빼져나가고 일할의욕도  
없어지고 기초수급자로 전락하면 사회적  
비용은 더 많이 들고 경제활동인구가 줄  
어드는 결과를 초래하죠."

즉 빚이 있어도 경제활동은 제대로 할  
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줘야 채무상환  
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.

"채무자들이 빚을 일부러 안갚지 않  
아요. 사업도 극소수를 제외하고 일부  
러 망하지도 않죠. 다들 성실하게 경제  
활동을 하다가 채무자가 된거예요. 심  
지어는 불공정한 실직으로, 부모님의  
사업실패로,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채무  
를 지게 된 경우도 많죠. 도덕적으로 비  
난만 하기에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습니  
다."

실제 센터를 통해 채무조정을 시작하  
게되면 빚독촉이 멈추게된다. 소송, 가  
압, 통장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.  
빚은 안고있지만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 
통해 빚을 청산하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갈  
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.

최근에는 취업이 어려워 젊은 2030세

대의 채무자들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.  
실제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SNS를 통해  
소액으로 원금을 대출해 주고는 일주일  
안에 50% 이상의 이자를 받아가는 불법  
대출이 성행하고 있다. 이 센터장은 이에  
대해 젊었을 때부터 기본적인 신용등급  
관리는 꼭 해줄 것을 당부했다.

"은행거래가 좋을수록 낮은금리를 대  
출받을 수 있는거예요. 같은 100만원을  
빌렸다고 했을때 누구는 이자를 3만원,  
누구는 24만원을 내야해요. 즉 신용등  
급관리를 잘해야 돈도 벌 수 있다는거  
죠."

가장 쉬운 신용등급관리에 대해 물었  
다. 그는 "월급이 들어오는 은행을 주거래  
은행으로 정하고 소득을 증빙할 수 있도  
록 해야합니다. 신용카드 또한 같은 은행  
에서 쓰는것이 좋죠. 가능하면 같은 은행  
에서 적금을 가입하는 것도 좋습니다. 자  
동이체도 신용등급관리 실적이 해당됩니다.  
핸드폰, 가스요금 등등 자동이체로 이  
용하세요. 또 모바일뱅킹 사용빈도가 높  
아도 신용에 좋습니다. 참고하시고 신용  
등급관리 꼭 해주세요!"

/김유진 기자 ujin6326@metroseoul.co.kr

